

경제

상품에 예술 입히고 기업간 공동 제품 개발

콜라보레이션 열풍

(collaboration·협업)

신세계·롯데백, 협업 제품 인기

기아차·SK텔레콤 '유보 서비스'

서로 다른 업종들끼리 손잡는 콜라보레이션(협업·collaboration)이 패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특정 기업의 상품에 적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기업간 제품 개발까지 콜라보레이션 적용 사례도 다양해졌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업계의 경우 의류 중심이었던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이 최근에는 화장품, 핸드백, 신발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이들 상품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최근 LG패션의 닥스액세서리가 선보인 김중만 사진작가와 콜라보레이션 기획 선물세트가 입고된 지 일주일 만에 50% 가량 팔렸다. 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기부캠페인으로 김중만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특별 선물세트를 판매해 수익금의 일부를 김 작가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화장품 브랜드 겔랑이 4월

말에 선보인 '에밀리로 푸치 by 겔랑' 구슬과우더 제품이 현재 품절 상태다. 수에무라가 일본의 아티스트와 손잡고 지난달부터 판매했던 클렌징 오일 상품은 현재 400개가 팔렸다.

또 잡화 브랜드인 소노비의 경우 뉴욕을 대표하는 팝아티스트 '키스해링'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가방, 지갑, 열쇠고리 등 100여개를 선보였다. 이 브랜드에서는 지난해 전영근 화백과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여 완판을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객들이 다른 지역보다 아티스트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한정판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최근에는 기업과 기업이 전략적으로 손잡고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기아차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차량용 IT서비스인 '유보(UVO)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유보'는 차량과 운전자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통신기술로 연결, 차량의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운전자가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기아차의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말한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닥스 핸드백 매장서 직원인 김중만 사진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한 기획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차는 지난 2일 '유보'가 탑재된 'K9'를 선보였으며, '유보'와 연계한 '스마트 원격 케어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향후 출시된 신차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혁신도시 배후에 저렴한 분양가

(주)우방 광주 남구 백운동·월산동에 아파트 584가구 분양

(주)우방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과 월산동에 '우방아이유엘' 아파트 584가구(303가구, 281가구)를 11일 분양한다.

광주의 대표적 명문대학교와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 주거지인데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3.3㎡(평)당 600만원대 저렴한 분양가격이 강점이다. 특히 택지지구와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

남구 백운동 일대에 들어서는 '백운 우방아이유엘'은 전용면적 84㎡(34형) 7개동, 303가구 규모다. <조감도>

단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관상형이며, 내부는 4베이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조망·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동간거리를 넓히고 지상주차는 최소화했다. 주민편의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단지 내부의 특화공간 등이 들어선다. 특히 단지는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나 163%로 크게 낮춰 입주자 지분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대성초·무진중·수피아여고·석산고 등 교육환경이 좋다. 또 광주 도심이 인접해 있고 백운교차로를 통해 나주·화순 등 도심외곽 진출입이 편리하다. 입주예정일은 2014년 4월이다.

'월산 우방아이유엘'은 남구 월산동 광주MBC에 인접해 있다. 전용면적 84㎡(35형) 172가구, 117㎡(43형) 67가구, 125㎡(46형) 40가구, 183㎡(67형) 2가구 등 총 281가구다.

단지는 9개동이며 정남향 관상형으로 설계됐다. 단지 내에는 원형벽천, 햇빛공원, 햇살광장 등 조경을 강화했다. 내부는 특화구

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조망,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서비스 공간을 최대화해 사용공간이 넓다.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과 5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월산초·양동초·무진중 등이 가깝다. 특히 월산동은 최근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입주예정일은 2014년 1월이다.

우방은 서구 농성4거리 농성역 인근에 견본주택을 마련했으며, 오는 11일 문을 연다. 분양문의 1577-277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업 선도국가 도약 정책토론회

무역협회·대한상의·포스코경영연구원 내일 광주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대 한상공회의소·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힐리데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이 '선진국·신흥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이홍식 고려대 교수가 '한국 무역 현황·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해외진출 및 국

제 산업자원 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오상봉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의 사회로 '각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우리의 활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오성근 코트라 부사장, 조정완 광주일보 편집국장,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조동원 전남대 산학협력단장, 권오성 현대건설 전무, 이정은 인터세이브 대표가 예 토론을 벌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민원 서비스 전국 1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이 지난달 중소기업청이 17개 지방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부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 민원서비스 품질평가는 민원처리건수의 10%를 표본 추출해 민원인 접근성·대응성, 민원처리 신속

성·공정성, 체감 만족도 등 5가지를 전화설문으로 조사·평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평가 결과, 접근성 84%, 신속성 87%, 대응성 88%, 공정성 87%, 체감 만족도 87%의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남중기청이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 유기농 비파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완도의 지역특화상품인 '비파'를 선보이고 있다. 비파는 열매부터 뿌리까지 활용되는 건강식품으로 비타민A가 풍부해 감기예방은 물론 피부미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 제공>

4월 자동차 수출 늘고 내수 줄어

39만6184대 생산...작년 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쳐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이 내수 부진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식경제부는 4월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은 27만6639대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지만 내수는 4.5% 줄어든 12만9045대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은 1분기(20.3% 상승)에 이어 호조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내수는 고유가와 국내외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신차 부재, 대기수요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감소세는 완화됐다. 작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의 증감률은 -7.2%였고, 3월도 -8.9%였다.

그러나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될 신형 싼타페와 K9 등을 고려하면 내수판매는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이에 따라 4월 생산은 선거공휴일로 인한 조업일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한 39만6184대를 기록했다.

현대차(16만8144대)와 기아차(13만7565대)의 생산은 안정적인 수출을 바탕으로 각각 1.9%와 7.3% 늘었다.

한국지엠(6만7537대)과 쌍용차(1만933대)는 전반적인 수출 부진 등으로 각각 8.0%와 1.9% 감소했고, 르노삼성(1만1682대)은 내수 부진으로 무려 32.1% 줄어들었다.

지난달 수입차 점유율은 BMW 320d 등 배기량이 낮은 2000cc이하급 다양한 모델들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3월의 8.1%보다 0.2%포인트 늘어난 8.3%를 나타냈다.

작년 12월 5.7%에 불과했던 수입차 점유율은 올해 1월 8.9%로 치솟았다가 2월 7.5%로 하락한 뒤 3월에는 반등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67.01 (+10.57)
▲ 코스닥지수	496.60 (+7.59)
▼ 금리 (국고채 3년)	3.38% (-0.04)
▼ 원·달러 환율	1,135.60원 (-2.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주)동원도시개발

수완지구 흑석 EGthe1A 앞

2500세대

중심상권 부동산

금호, 수완, 상무지구

임대완료된(2억원대) 핵심상가, 부동산 다수

분 양 중

푸르지오부동산 362-5400

ISO 9001 / 14001 인증 고객센터 1600-8501 www.kpol.co.kr

우리나라 무인경비는 케이폴입니다

무인경비 독립선언

우리나라에서 무인경비 서비스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유독 무인경비시장만큼은 외국계 회사와 브랜드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경비회사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우지 자본,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무인경비시장을 지켜온 우리 기업들이 이제 케이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무인경비 케이폴 우리 브랜드, 우리 자본, 우리 기술로 당당히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케이폴이 지킵니다.

·KBS 2TV 및 MBC TV에서 방영중입니다.

무인경비 | CCTV | 근태관리 | 출입관리 | 시설관리 | HR아웃소싱 | APT통합경비 | 시설경비